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새해 국정연설을 시작하자 여야 의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자 증세로 중산층 살리자”

美 오바마 새해 국정 연설

강한 외교력·군사력 결함

‘더 현명한 리더십’도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부자 증세 등을 통해 빈부 간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 회복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중산층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국제 테러리즘과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처도 강조하면서 미국이 전쟁과 경제난으로 점철된 지난 15년을 보내고 ‘역사의 한 장을 넘길 때’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밤 워싱턴DC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한 새해 국정연설에서 “소수만 유별나게 성공하는 경제를 받아들일 것이냐. 모든 노력하는 이들의 소득 증대와 기회 확대를 창출하는 경제에 충실할 것이냐”고 되물고 “정치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상위 1%가 축적된 부에 걸맞은 세금을 내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 불평등을 초래하는 세금 구멍을 막자”며 “그 돈을 더 많은 가정이 자녀 보육이나 교육에 쓰도록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국정연설 사전 설명에서 구체적 방안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자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본소득 및 배당이익 최고세율을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 수준인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권 전반기 15%에서 23.8%로 올린 소득세율을 한 번 더 인상하자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 등 자산이 500억 달러를 초과하는 100대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세를 거둬들이고 주식과 같은 유산 상속분에 자본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32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림으로써 저소득층 감세와 가족 부양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 도입,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지원 등에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외교 현안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력과 강한 외교력을 결합한 ‘더 현명한 리더십’을 제시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보여준 군사력을 포함한 미국의 지도력은 이슬람국가(IS)의 약진을 멈추게 했다”며 “중동에서의 다른 전쟁에 발을 담그는 대신 테러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 중산층을 위한 경제정책은 제대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제 간소화와 부자 증세 등을 제안했다.

터키 실종 김군, 1년전부터 IS 가입 희망

국제범죄수사대, 컴퓨터 분석...“납치 가능성 낮아”

터키의 킬리스에서 실종된 김모(18)군이 1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수니파 율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등을 검색하고 IS 가입 희망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21일 발표한 수사결과에 따르면 김군의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 13일부터 지난 7월까지 1년간 3020회 검색 기록 중 6분의 1가량인 517회가 IS, 터키, 시리아, 이슬람 등에 대한 검색이었다. 또 터키 여행정보, IS 관련 신문기사 등 65개 인터넷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해 IS와 터키여행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3월부터 김군이 IS 가입을 희망하는 글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남기기도 했다. 지난해 3월 11일 김군의 페이스북 한 친구에게 ‘IS에 가입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가’, 지난해 10월 26일 또 다른 친구에게는 ‘IS 아마 그곳에 가입할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라는 글을 썼다.

터키로 여행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7

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난 이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어. 단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군은 트위터에서는 적극적인 IS 가입 의사를 나타냈다. 지난해 10월 4일 볼특정 다수에게 “isis(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의 전신에 어떻게 가입하는지 누가 아나? 난 isis에 가입하고 싶어”라고 물었다. 이튿날인 지난해 10월 5일에 대화명이 ‘Afriki’로 IS 측과 관련성이 높아 보이는 인물로부터 “ISIS에 가입하려면 터키로 가라. 그곳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해 10월 9일에 ‘Afriki’는 “하산 형제에게 연락해라. 그는 이산탈북에 있고, 전화번호는 053*****”이라고 알려줬다. 이어 지난해 10월 15일에는 구체적인 가입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김군이 “형제여 난 그냥 ISIS에 가입하고 싶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하자 ‘Afriki’는 여행객처럼 터키로 여행을 떠나서 아무 이슬람 성원으로 가면 그곳에

서 너를 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보안성이 높아 IS가 조직원을 모집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SNS인 슈어스팟(surespot)에서 ‘ga***’를 찾았다고 충고했다.

경찰은 이후 이 둘 사이에서 IS 관련 대화가 없어 김군이 ‘Afriki’의 제안대로 슈어스팟에서 ‘ga***’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군은 최소한 1년 전부터 IS에 관심이 있었지만 김군 부모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김군 모친은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터키여행을 가고 싶다고 여행을 다녀온 후 마음을 잡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말해 터키 여행을 허락했다고 진술했다. 모친의 부탁을 받고 터키 여행을 같이 간 홍모(45) 씨조차 지난 9월 킬리스 모 호텔에서 도착하고서 처음으로 김군으로부터 하산의 이름을 알게 됐다.

경찰은 김군이 터키 여행에 짐작하고 본인이 주도해 킬리스 호텔을 찾아갔고, 부모와 동행자에게 하산과의 만남을 감춘 점 등을 근거로 김군이 납치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IS 인질 석방 국제사회 협조를”

日 아베, 터키 정상 등에 요청

일본 정부는 수니파 율리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살해 협박과 관련, 국제사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중동 방문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시각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요르단, 터키, 이집트 정상과 잇달아 전화통화를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요르단 국왕인 압둘라 2세와의 통화에서 “인질 조기 석방을 위한 협력을 얻고 싶다”고 말했고 압둘라 국왕은 정보 수집 등 면에서 최대한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협박 동영상에 등장한

괴한이 IS 대처와 관련한 일본의 2억 달러 지원 약속을 문제로 삼은 점을 의식한 듯 “일본의 지원은 난민 지원을 비롯한 비(非) 군사 분야에 대한 공헌”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또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과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요청을 했다.

유럽을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외무상은 현지시간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옌스 슈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가진 회담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 등과의 통화에서 정보 수집과 인질 조기 석방을 위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에어아시아, 추락 전 비정상 속도 상승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지난달 추락한 에어아시아 소속 QZ8501 항공기는 추락 직전 비정상적 수준의 빠른 속도로 고도를 높였으며, 이어 하강했다가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인도네시아 교통부가 밝혔다.

이그나시우스 조난 교통장관은 20일(현지시간) 의회 보고에서 레이더 자료를 인용해 항공기가 작년 12월 28일 실종되기 직전 1분 당 6000피트의 속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조난 장관은 “그 정도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민간 항공기가 보통 1분에 1000~2000 피트 상승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그것(고속상승)은 전투기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역사수정주의, 美 이익 저해”

미국 의회조사국 밝혀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역사수정주의 언행이 아시아 역내 외교관계에 지장을 초래해 미국

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일(현지시간) 의회조사국이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2차대전 시기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동해와 동중국

해 영토분쟁과 관련한 아베 총리의 접근 태도는 모두 역내 긴장을 촉발하는 요인들”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 의회에 판단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의 이 같은 지적은 아베 정권의 역사 수정주의 행보에 대한 워싱턴 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가다

900년 전 옛 성을 중심으로 39 선언하고 나선 뒤로 중국으로 가는 이 헤이온와이는 세계 최초 온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헤이온와이는 마을 주도로 세계 최초의 책마을을

책으로 못다한 이야기,
신문으로 채웁니다!

아이가 가보지도 않은 영국의 현책방 마을, 헤이온와이를 애기합니다
몇 년 후에 가보겠다고 계획을 세웁니다. 매일매일 신문이 아이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아이의 세상이 넓어집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